

授業과 學生指導, 이대로 좋은가

姜 勝 規

(全州又石大 教育學科)

1. 大學敎育과 우리의 狀況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 관계의 형성은 일차적으로 학교가 하고, 그 학교를 직·간접으로 통제하는 곳은 정부와 재단이다. 정부와 재단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회라는 큰 테두리이다. 대학 수업과 학생지도는 주위의 여러 가지 社會的·政治的 狀況 조건과 무관할 수 없다. 微視的인 입장에서 학교교육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학교 밖의 사정들이 학교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조그마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학습의 효과나 경영의 효율성 등을 따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그러나 대학 내부의 문제가 巨視的으로 보면 대학 밖의 사정과 관련이 크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두어야 할 것 같다.

대학을 설립하도록 허가를 내준 교육부의 역할이나 교육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관료, 특히 여당의 정치관료와 행정관료의 역할이 대학 내부에 직접 관계된다. 그것은 대학 자체가 영세할수록 더욱 심하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라는 곳이 묘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첫째, 대학교육을 받기 이전에 학생들이 받은 교육, 즉 고등학교·

중학교·국민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自由가 허용되지 않는 매우 官僚的·權威主義的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이 주체적인 자율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개방된 자유로운 교육이 주어지는 곳이 대학이란 점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학생이 상당 기간을 혼란 상태에서 보내며 '제 2의 사춘기'를 대학 저학년에서 맞게 된다. 이 시기에 자신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주체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을 재정립하게 된다. 고교식의 틀에 박힌 공부로부터 탈피하여 자체적으로 일정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짐으로써 그간의 억눌린(?) 교육에서 해방(?)된 활동을 하게 된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그야말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의 開放的 指導와 相談이 요청된다.

다른 하나는 대학을 통해서 한국 사회와 정치 발전이 선도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많은 학생은 고교식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보이는 대학교육의 강의를 비판하고 자기 나름대로 별도의 사회·정치 발전에 관계되는 영역의 공부를 시작함으로써 民族과 社會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사실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사회의 부정과 병리현상들

이 지적됨으로써 정치와 사회의 전환점들을 갖게 되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가깝게는 제 6 공화국이 들어서기 전 6·29선언이 있기까지 일어난 여러 변화를 주도한 힘도 대학생들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깨어있는 학생들의 역할이란 강의실에서 강의만을 충실히 받는 것이 대학 공부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쉽게 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여 어떤 처방을 탐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제목의 글을 다루면서 대학을 둘러싸고 있고 대학이 갖고 있는 더욱 근원적인 문제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이러한 歷史的 狀況과 우리 사회의 크나 큰 病理現象이 바로 대학의 수업과 학생지도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겉날기식 대안이나 정책들에서 힘이 없는 많은 사람이 그저 이끌려 따라가야만 하는 상태를 항상 벗어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사회와 교육을 이제는 냉소하면서 남의 일로 생각하고, 혼자만의 칩거로 자신의 작은 일을 찾거나 아예 무관심해버리는 병적 현상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특히 지식인의 冷笑主義와 無關心은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또다른 큰 전환을 임태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87년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커다란 진통을 겪어 왔다. 그리고 민의에 의해 정치가 주도될 것이라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변화도 있었다. 그러나 1~2년 전부터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과 법들이 탄생하여 '다시 잡은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대학이 대학구성체의 의지와는 별개로 反民主的으로 이끌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새로운 합리적인 길을 탐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며, 이는 바로 대학의 교육과 학생문제에 직결되어 있다.

그간 진통기를 겪으면서 대학은 큰 혼란을 경험했으나, 이 혼란을 질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는 새로운 입장에서의 合理的 轉換이 절실한 때이다. 이것이 대학을 새롭게 안정시키는 길이 될 것이며, 아마 이 특징을 기획한 편집진들이 대학의 수업과 학생지도의 안정적인 방향을 탐색코자 한 의도에도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사회는 부도덕한 현상을 학생들에 의해서 교수가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떠한 전문성도 필요없이 교수의 권위가 상실되어 어떠한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그간 대학에 제직된 교수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 안팎에서 일어난 부정과 부패 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가 아니면 아예 모르는 일들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새로운 도덕적 합리적인 장치나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대학 講義의 權威를 회복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대학 수업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강의 내용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으나, 현실을 덮어둔 채 추상적 理論만으로는 학생의 현실적 욕구를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의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이 우리 社會 現實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좋은 이론이라고 여기는 주체적 인식이 성숙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 교육을 직시하여 이를 고민하는 학문적 성숙이 없는 한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에서 각각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학문분야에 따라서 講義內容이 現實適合性을 지녀야 한다는 문제는 다소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 강의내용이 현실적합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는 강의라 할지라도 사회와 대학의 부조리와 반도덕적 현상을 눈감아 버리고 강의에만 열중할 수 있는 형편을 지키기 어려웠던 과거 경험은 되새겨 볼 일이다. 이것을 거부하고 또 그런 현상을 부정하면서 '강의 철거'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상황이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현실을 경험하지 않은 교수가 우리 사회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대학간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강의 밖의 요인들로 해서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태가 늘 있어 왔음을 쉽게 간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교수의 실력(?)에서 비롯된다고 비난한다거나, 일부 학생들의 편향적인 주장과 소요에서 비롯된다고, 단순히 개별 대학 내부의 지도력이나 또는 비리에서 연유된다고 하는 식의 '책임회피적인 편협한' 접근방식으로는 대학이 안고 있는 강의와 학생지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신문과 방송망을 통하여 드물지 않게 보도되는 대학 문제로서 교수채용의 비리, 부정입학, 재단의 비리 등등은 대학의 倫理性을 통째로 부정하는 현상이다. 점입가경인 것은 이러한 현상은 아예 눈감아 버리고 무조건 학생지도를 교수의 지도력 부족으로만 탓하는 것이다. 이 사회의 不道徳이 바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임시방편적인 '단방약식' 조치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힘이라고 하는 교육·행정·정치 관료와 사립학교재단, 대학행정당국이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정당성이 없는 자신의 세력을 힘으로 유지하는 일은 당분간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 사회는 이미 깨어있는 대중들에 의해서 움직여 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대중적 여론을 무시한 정책은 오래 지탱하지 못한다는 점이 상식화되어 있다. 아니 대중적 여론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세력은 쉽게 사그라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대중의 여론을 반영하고 대중의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회를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도 國民的 輿論을 통째로 무시하는 법을 만들어 적용하고, 대국민 약속마저도 이런 저런 핑계로 휴지처럼 다루는 현상을 敎育의 場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강의와 조용한 학생집단 형성'이란 어떠한 것을 말할 것인가? 교수의 지도력과 권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래도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감고 '책 속의 듣기 좋은(?) 이론'들만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좋은 강의인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현대적 의미의 대학 이념은 이렇게 현실 문제를 모른 채 넘어가는 교육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병어리와 귀머거리의 양산하지는 말과 통하는 것이 아닌

가? 그러면 좋아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일제 시대에 일본놈들(!)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기 위하여 하등의 교육을 시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무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만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발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역사는 다행히도 바르게 진행되어 우리에게 독립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 지금의 愚民化 정책은 누구를 위함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대학의 강의와 학생지도와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탈정치적·순수교육적 입장에서 다룰 수 있는, 도덕을 가장 맑게 지킬 수 있어 설득력을 지닌 기구와 같은, 치외법권적인 영역 속에서의 장치를 장기적 방안으로 강구해야 할 줄 안다. 대학 외적 상황이 비정상적일 때 대학의 강의나 학생지도는 늘 그와 비례하여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의 학생지도와 수업의 문제점과 전망을 다루면서 이토록 장황하게 상황 설명을 하는 사정을 필자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우리 대학의 수업활동 및 학생지도 문제를 경험적으로 반성·비판하여 이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다루려 한다.

2. 授業活動에 대한 反省

우선 대학 수업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의 수가 부족하고 담당 강의 시간이 많아 새로운 연구활동을 위한 시간적 여유나 연구분위기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研究機能이 중요하다는 보편화된 제1의 대학운영 방침은 현실적으로는 '그냥 있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대학이 많다. 특히 역사가 짧은 대학에서는 이것을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수의 학문적 노력과 업적이란 말 자체가 학교 경영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학참은 일로 여겨지고 있다. 교수의 연구는 개인적인 일로 여기면서 학생지도는 대단히 공적인 일로 여기는 파렴치한 현실에서 학문연구의 위상을 어떻

게 높일 수 있겠는가? 여기에 교수의 품위나 권위란 한낱 작은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며 연구 풍토 진작이란 '빛 좋은 개살구'다. 교수직이 이제는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지위가 이미 아닌 세상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역할인 연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행정을 맡고 재단을 설립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사고를 지닌 일부 재단과 경영진 그리고 많은 교육행정관료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과 사회에 크게 발생을 일으킨不正入學은 교수와 대학의 권위를 최후로 지킬 수 있는 평가를 엄중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적 요소로서 수업 분위기를 통제로 망친다. 일부 대학이라고 하지만, 소위 부정입학생들은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 크나큰 장애요소가 아닐 수 없다. 부정입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소위 '벙'이라는 것)은 암암리에 성적을 엄중 관리할 수 없게끔 하는 큰 문제가 되어 있었음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현재는 국민적인 감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정입학생이 장학금 등의 특혜를 더 받는 경우가 있고, 더욱이 성적에도 암암리 작용하는 힘(?)이 있어 왔다. 성적을 엄정관리, 즉 절수가 나온대로 성적을 주지 못하고 후하게 올려 주어야만 하는 암묵적인 압력들도 있었던 상황을 지울 수 없다. 교수의 權威란 연구에서 오는 학문적 업적과 좋은 강의와 공정한 학생관리에서 비롯된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공정한 학생관리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 대학의 권위가 망가진다.

셋째, 중간고사와 기말시험으로 관례화된 評價만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며 평가의 本來的 機能이 강화되어야 한다. 평가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받은 수업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적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여 성적이나 등급을 매기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학생의 공부를 돕는 기능으로서 평가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즉, 학생이 수업 이수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

하고 그에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이 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하여 교수방법 및 학습의 지원체제를 적절하게 변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기능과 함께 학생에게 평가의 결과를 환원시켜서 학생 스스로가 그 결과에 대하여 해석하고 본인 스스로 학습 요령과 방향을 새롭게 교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더욱 향상시키는 기능이 현대적 의미의 평가 개념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이고, 실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것도 체계화되지 못한 논술형의 시험문제로 강의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하는 암기력 측정에 초점을 둔 평가로는 종합력·적용력·분석력·문제해결력·자율적 탐구력·추리력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 평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의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교수 연수 등을 통하여 평가 방법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수업실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규모 수업의 支援體制인 조교와 수업매체를 갖추지 못하여 교육의 질을 더욱 격하시키고 있다. 대학에서는 사정상 대규모 강의를 진행해야만 하는 형편이나, 이에 대한 교수의 업무량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수업을 보조해 주는 조교의 활용과 함께 여러 교육기자재 활용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강의는 대학 운영상의 경제적 질약 차원이외의 별다른 요인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돈을 아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강의를 위한 편의 시설 지원을 함께 고려하는 양식 있는 행정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올 수 있을런지?

다섯째, 교과 편성과 강의내용에서 지나치게 보편성이 강조됨으로써 각 대학, 각 학과의 學問的 特殊性이 경시·무시되고 있어서 결국 학생들과 교수를 존중하지 못하는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추세를 크게 반영하는 교과 편성은 오히려 학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간 교육부의 주관으로 평가하고 있는 기준들에서 영향을 받기도 했겠

지만, 대학간의 차별적인 학문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은 각종의 국가규모 시험제도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문 발전이 일반화되기까지는 어느 특수한 사람들의 특수한 관심에 의해서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수성을 크게 존중하는 교과운영과 수업진행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 학문발달사를 보면, 특정한 사람이 작은 문제를 잡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롭게 시도하는 연구에 의해서 사회와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학문이 체계화되기까지 보편성보다는 오히려 각 대학이 갖고 있는 人的·地域的 特性이 크게 반영된 학문탐구를 진작시키는 것이 대학의 독립적·자주적 발전을 촉진시킨다. 각 대학이 처해 있는 여러 여건, 재정적 상태, 학생의 구성요인, 교수의 학문적 특성,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학문적 풍토를 갖는 것이 대학의 성장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적 사정과 교수와 학생의 관심에 따라서 주제적으로 새로운 영역의 연구가 착수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學習의 場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안이다. 강제적인 제약이나 보편성을 지켜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관심이 없는 영역을 다루는 강의는 실제로 좋은 강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 강의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것이 바로 非人間化 현상이 아닌가! 출판된 교재를 일률적으로 진도에 따라 수업을 하며 일반적인 지식을 암기하기에 급급한 강의를 좋은 강의라고 볼 수 없다. 주제적인 문제의식으로 문제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강의에서 새로운 안목과 창의적·탐구적인 종합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강의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대학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3. 生活指導의 診斷

대학생 생활지도 문제와 관련된 점들을 반성하는 입장에서 돌아보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학은 폐쇄적인 교묘생활로부터 급격

하게 自由가 주어지는 개방된 생활로 전환되므로 과거에 대한 반작용 현상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억눌려 있던 정도에 따라 큰 혼란과 위기를 겪게 되는 人生의 再出發點이라는 점을 학생지도 차원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인식해야 한다.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은 대개가 급작스럽게 성인인 된 것처럼 인식하면서도 아직 실제로는 완전한 성숙을 이룩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본인들은 성인으로 행세하며 사회에서도 대학생에 대한 인식은 달라서 이들만의 공간이 형성된다. 주어진 자유 속에서 자기들 나름의 주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갖게 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유를 누린다고 여긴다. 대학은 실제로 고교에 비하면 많은 시간이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많은 자유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한다고 꾸짖기만 할 수 없는 사정은 과거에 그러한 생활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오랫동안 찾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적응체제를 갖추기에는 또다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학생지도 차원에서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유스러운 생활을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를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영국의 자유학교인 서머힐 교장 니일은 다른 학교에서 전학온 학생들이 서머힐 학교에 적응하기까지 3개월에서 3년이 걸린다는 경험담을 그의 책에서 털어 놓은 적이 있다. 그 적응 기간에 이전에 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을 모두 다 시도해 본다는 것이다. 물론 서머힐은 특수하여 모든 것을 학생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할 수 있는 학교이다. 그리고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서머힐에 교편을 잡게 된 교사들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을 서머힐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유스러움이 급작스럽게 주어진 사람들의 행동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고교의 폐쇄적 생활로부터 벗어나 거의 절대적인 자유를 갖게 된 학생들의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을 강압적 수단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에 자유분방한 지적 사고가 작용되는 시기가 결

쳐져서 때로는 급진적인 형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 상담과 지도가 진지하고 자유롭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인지? 그러나 대학생 모두를 이러한 심리현상으로 파악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좀더 느긋한 자세로 학생의 입장에서 대화로 풀아가는 방식이 중요하다.

둘째, 과거에 지나치게 정치적 이익을 개입시킨 학교교육의 결과로 개방된 대학에 와서 학생들이 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對政治·社會的 反抗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학생지도 차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교육에서 만약 거짓을 가르치도록 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가르친 사람과 그렇게 교재를 만들도록 한 사람이 잘못이다. 그 거짓을 발견한 학생에게는 큰 작든간에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충격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 표출될 곳은 어디인가? 교육을 진심으로 맑고 밝게 이끌어 갈 역량과 소신이 없다면, 대학생 지도 문제는 모두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상담과 지도는 진실된 대화에서 출발한다. 眞實을 감추고 어둡고 추한 면들을 지니고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기극이며 얼마 가지 못하여 그 상담자와 학생의 관계는 반항과 배신감으로 뒤바뀌게 되어 있다. 이 배신과 반항은 바로 인간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데에서 오는데 그것은 마지막으로 허물어져가는 나 스스로를 건지기 위한 막다른 길의 선택일 수도 있다. 이 현상은 바로 대학과 사회 전체로 발전·파급될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진실이 개입되지 못한 관계를 형성한 기성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셈이 된다. 이 경우 만약 교수가 상담자였다면, 그 사람은 부도덕한 교수로서 양심선언이라도 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달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더욱 큰 것은 이러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는 그것이 거짓인지를 알면서도 버젓하게 그런 일들을 만들고 다니는 뻔뻔함을 지닌 사람들

도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서클활동 중심의 대학생 생활을 대학 자체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묘안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시각에서 대학의 여러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관심 영역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면서 학생생활이 서클화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서클 생활 자체를 인정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며, 아니면 전혀 통계를 하지 않고 학생들의 비공식적인 활동을 끌어들이 수 있는 건강한 프로그램을 대학 스스로 마련해 줌으로써 학생의 서클중심 생활을 공식화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용 방식에 기성인의 입장이 강조되어 학생의 입장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넷째, 대학의 學生研究所가 학생시위를 막기 위한 상담실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일부 대학의 몰상식한 연구소 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학생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공 학과가 개설될 정도로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외국의 실정에 비하면, 우리는 학생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가 아니면 아예 그릇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체적·정신적·지적으로 성인의 성향을 많이 지니고 있는 대학생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정신적 혼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소와 상담실 운영이 절실하다.

다섯째, 교수의 권위주의적 지도는 변화된 民主的 生活 태도와는 반대되며 그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거부감만을 형성시킨다. 우리 사회는 제 5공화국이 물러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 큰 변화는 민의의 성숙으로 정치적 변화가 초래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수직적 인간관계가 많이 청산되고 수평적 인간관계로 전환된 점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에서 '사회가 변했다' 또는 '버릇없는 젊은 놈들', '망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버릇이 없는 것과 일을 위하여 수직적인 관계 속에 예속되어 일을 합리적·도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일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를 유

지하면서 일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고민하는 행동이 더 진취적이며 밝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식의 눈치와 체면과 인사치레 같은 행위들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여하튼 변화된 현상은 權威主義的 태도로는 대학생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되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 학생을 존중할 수 있다면, 변화된 학생들의 행동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동정하는 인간적인 기본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교육의 비인간화와 소외현상의 책임은 학생측보다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학생 외의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학생처 중심의 학생지도가 그간 대학생 지도의 주종을 이루어 왔다고 해도 부정하지 못할 형편인데, 이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생지도의 非倫理的 行態로 말미암아 오히려 대학생에 대한 지도력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다. 이미 알려져 있는 비밀처럼 되어 있는 학생처 중심의 학생지도는 주로 시위와 관련된 소위 문제학생에 대한 계도와 지도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음성적인 지도비(?)에 의한 학생지도는 마치 일반 사회의 상거래에서나 볼 수 있는 것과 흡사한 형태로 학생과 교직원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술, 돈 등등으로 설득이 이루어진 지도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말을 삼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사회의 중견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反道德的 去來가 학생과 교직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큰 타락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타락된 현상을 누가 회복할 수 있는가? 대학 행정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도덕적 타락을 자초하는 학생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지도를 강화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상태에서 교수의 학생지도 강화는 무엇을 말함인가?

4. 方向과 展望

이상에서 원고 청탁의 의도대로 학생지도와 학습활동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해본 셈인데,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할까 한다.

첫째, 대학의 학생지도와 수업이 人間化되어 진실을 말함으로써 사제지간의 인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의 개선만이 아니라 대학 밖의 고질적인 사정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해진다. 만성적인 대학생 시위에 대한 根源的 接近이 절실한데, 대학생은 예비 사회지도자로서 사회와 정치의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이 사회가 더욱더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세력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과거 왕권시대의 성군관 유생들에서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학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보조적인 수단적 조치들에 얽매진 설득력 없는 행동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대학생들의 지도 문제는 적어도 그러하다. 그리고 그 외의 일반적인 대학생의 심리적 상태를 진단하여 그를 치유하는 일은 전문적인 상담요원이나 전문적 상담교수의 일로 전환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수업 활동은 현재보다는 實驗主義的 接近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탐구적 능력과 자세를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그를 위하여 암기중심적인 것을 탈피하여 과학적 사고진작을 위한 강의 진행, 학생의 관심을 수용·인정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강의 내용, 교루한 기성의 사고를 주입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자세로 강의의 참신성을 유지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문의 보편성과 함께 특수성을 개발하거나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의 강의 진행이 요청된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수 영역에 대해서는 대학간 학점인정제와 같은 방식을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적도 하며, 학과 재직교수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특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 등은 새로운 활성화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근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단이나 교육부의 家父長的 지도나 간섭이 없어져야 한다. 대학 구성체들간의 의사 수렴에 의하여 대학의

강의가 이끌어질 수 있기 위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의 對國民 倫理性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법 또한 민의를 반영한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법의 민의화, 즉 대학 구성체를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민주적 대학 운영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외부의 간섭에 의한 지도가 아니라 자유롭고 주체적인 지도와 학습활동이 진작되도록 고무·격려받는 대학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대학은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대학 구성체에 의한 自主·民主的 의사결정체제를 점진적으로 마련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지도와 학습이 잘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직교수들이 항상 더욱더 나은 강의와 지도방법을 創造的으로 새롭게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연구·노력해야 한다. 위에서 지적된 것 중 입장에 따라서 필자와 달리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나의 시론에 불과한 문제제기에 그친 글이다. 새롭게 늘 새로운 방안들이 공개토론되고 각 대학에 더욱 좋은 강의와 학생지도가 이루어져 대학이 이 점에서는 외부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들의 철저한 책임하에 그 한계선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지도력을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기 위한 結集力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